

찬양 · 세대 · 새벽 한 컷

세대가 함께 여는 새벽

우리 가족의 새벽을 소개합니다

10.20 / 한마디 인터뷰

Q.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누고 싶은 감사는 무엇인가요?



김정화 순장 · 2교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시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특새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한 주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21 / 수요일 특순

오늘 새벽에 담아 드릴 찬양

오늘 특순을 준비한 김태남 성도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 봅니다.

Q. 이번 특순에 어떤 마음과 기도를 담으셨나요?



김태남 성도 · 1교구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네”

유학 시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특송을 비롯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부탁받으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참여해 왔습니다.

이번 새벽 특송도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지만, 맡겨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함께 예배할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이번 특새의 주제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송을 듣는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GENERATIONS / 세대

이번 특새에서 기대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유종운 · 코키 어린이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말씀 속에 제가 아직 모르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박 옥 집사(1교구)와 유종현(코딩), 유종윤(코키).

01 일찍 나와 특새 싱어로 섬기는 마음

이른 시간에 나와 예배(부흥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소망입니다.

02 자녀와 함께 특새에 참석하는 마음

먼저, 특새에 참석하도록 아이들을 독려해주신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새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은혜 주시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가족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승민 · 1청년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INTERVIEW / 기도의 마음



이은정 집사 · 2교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깊이
사귀고 싶어요”

‘하늘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이 참 설레고 궁금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청년들의 특송을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예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Q. 오늘 일찍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남편이 주차 봉사를 해서 함께 일찍 오게 됐어요. 평소에는 쫓기듯 오곤 했는데, 일찍 와서 먼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니 참 좋았습니다.

Q.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또 다음 달에 딸이 결혼하는데, ‘하늘의 초대장’이라는 주제를 보니 결혼식 초대장이 떠올랐어요.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IN THE BAG / 새벽 공감 한 컷

새벽 가방을 열어 봤습니다



① 방성은 자매 · 1청년
화장품, 인형 친구



② 박은수 집사 · 1교구
교재, 물, 주스, 우산

① “언제든 사람이 될 수 있는 화장품,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자고 하는 마음을 담아 인형을 데려 왔어요!”

② “특별새벽부흥회 교재와 찬양 싱어로 섬길 때 꼭 필요한 물을 챙겼어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근해야 해서 직장에서 마실 야채 주스도 넣었고요. 새벽에 나오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 우산도 챙겨 왔습니다.”

하늘의 초대장

제1호 사림의교회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특별새벽부흥회 10.19-24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깊이 듣는 이야기

주기도문이 전네는 초대



함께 채우는 기도

하루 144분, 우리의 기도



함께 여는 새벽

우리 가족의 새벽 풍경



새벽 가방 속 이야기

기도하러 오는 길의 준비물

담임목사님 인터뷰 02 함께하는 챌린지 03 세대별 성도 인터뷰 04 새벽 공감 한 컷 04

말씀 / SPECIAL REPORT

주기도문으로 배우는 기도의 정수



사림의교회 예배 전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10.18 주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담은 신앙고백입니다.

그 안에는 죄로 떨어진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 곧 ‘하늘의 초대장’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을 받아내려는 기도를 넘어,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사림을 나누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당신의 기도는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와 사림을 나누는 ‘자녀의 대화’입니까?”

10.19 월요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하는 주문이나 의무가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고백입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정직하게 아버지를 마주하며 ‘나’를 넘어 ‘우리’를 품는 기도로 나아가는 다짐은 기도의 본질을 되새기게 해 줍니다. 세상의 결핍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모신 자녀로서 확신을 붙들고,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자녀된 확신으로 나아가, ‘나’를 넘어 ‘우리’를 품고 기도합니다.”

다음세대 / NEXT GENERATION

함께 받는 하늘의 초대장



다음세대는 더욱 특별한 특새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출석카드와 매일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출석의 기쁨을 쌓고,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새벽으로 초대합니다!

3 DAYS OF THE LORD'S PRAYER

10.20 화요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삶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낼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담임목사님 인터뷰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우리, 끝까지 함께 달려가시지요!”

Q01 이번 특새 주제를 ‘하늘의 초대장’으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초대

저는 주기도문에 제법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을 설명했고, 관련 글도 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 시작인 ‘하늘’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맞는 이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셨고, 사람과 함께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하늘’이라는 말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슬픔을 이기는 기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와 함께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을 가장 깊이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다시 내게로 나아오라.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에덴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새벽부흥회의 주제를 ‘하늘의 초대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도문 안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02 주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 마음에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사귀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기도에 대한 생각보다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드려야 할 기도와 내려놓아야 할 기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

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때 기도의 아름다움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그 분께 나아가 드리는 기도이기에, ‘사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러한 사귀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답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입니다.

요리문답은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다루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길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와의 사귀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주기도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Q03 요즘 사귀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가장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저는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성도님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분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진로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2화기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와 경탄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작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를 놓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온 자취를 알아차리지 못

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 기도를 권하기에 앞서, 저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 가는 사귀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Q04 특새가 중반에 접어드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끝까지 함께 달리는 기도의 한 주

짧은 한 주간의 특새이지만, 이 기도의 여정도 하나의 경주와 같습니다. 중반에 접어드는 수요일과 목요일쯤에는 몸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면 완주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작은 다짐을 지키며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소중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먹은 대로 한 주를 달려왔구나” 하는 기쁨을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달려가시지요!

Q05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기도가 막힐 때 먼저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가 잘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듯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아뢸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마치 맡겨 놓은 물건을 찾으러 가듯 우리의 요구만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경배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주기도문 특새를 통해 사귀의교회 모든 성도님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입술로 드리는 기도이자 삶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귀의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함께 은혜받읍시다!



함께하는 켈린지 · 은혜게시판 · 찬양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며

CHALLENGE 01

비운 한 끼에 기도를 채워요

한 켠 치고 금식 · 참여 안내

한 끼를 비우는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보세요.

방법 정한 끼니를 비우고, 그 식비만큼을 특별한 금으로 드립니다.

헌금 매일 비치된 헌금함 또는 헌금 계좌 사용처 모든 헌금은 신학생을 위해 사용됩니다.

CHALLENGE 02

나의 기도 시간이 우리의 기도로

144 분 매일의 기도 십일조

다락방이 함께 기도 시간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임혜진 순장 · 07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루 144분의 ‘기도 십일조’를 순원들과 나누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예배당 중앙 앞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는 순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장으로서 참 은혜가 됩니다.

김양선 순장 · 05여
“매일의 시편 기도, 기도 십일조로 이어지다”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을 읽고 기도문을 나누는 다락방. 순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기도를 망설이던 순원도 기쁘게 동참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특새의 ‘기도 십일조’ 켈린지는 일상의 기도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HALLENGE 03

한 글자씩 새기는 주기도문

익숙한 기도문을 천천히 적으며 오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만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석희 집사 · 은혜게시판

이번 특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HALLENGE 04

아버지께 오늘의 마음을 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 은혜게시판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특새의 시간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특별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오래 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고 공동체로 저를 이어주셨고 저의 생각을 넘어 헌신할 부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들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기쁜 삶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특새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실 말씀들이 저의 어떤 영역을 다루실지, 그리고 그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얼마나 풍성할지 기대가 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수납하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어두운 새벽, 엄마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이 평온한 야기처럼,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깊이 맛보는 특새가 되기를, 그리고 그 평안 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 삶에 적용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번 특새 첫날에도 어김없이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22명의 코키 친구들의 특새 참석... 전무후무한 신기록입니다^^

전참 조건으로 치킨 한 마리를 내거셨던 목사님도, 목요일만이라도 꼭 참석하자며 출석을 독려했던 교사들도 특새 첫날 고단한 눈을 비비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줄 거라고 진심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것이 특새를 통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시그널 같아 참 마음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또한 코키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직장에서 피곤한 눈을 비비며 꼭 전참의 영광을 누리보리라 다짐 또 다짐을 해봅니다. 설령 월요일 날 특새 참석에 실패했던 친구들일지라도 안 되면 하루만이라도 특새에서 얼굴 보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새의 현장에서 피곤하여 줄지언정 2026년 특새 참석이 아이들의 믿을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애들아 전참해서 이창민 목사님의 주머니를 꼭 털어보자!!! 전참이 어려우면 하루만이라도 출석장을 찍어보자!! 샘이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 아자아자!!

VOICES /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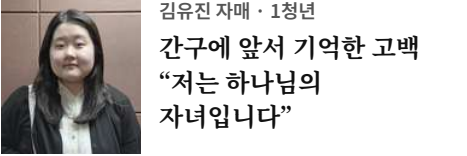
찬양으로 드리는
새벽의 고백

10월 19일 월요일 · 청년 특순



청년의 목소리로 드리는 새벽의 고백.

Q. 청년들과 함께 특순을 준비하며 어떤 기도를 담았나요?



김유진 자매 · 1청년

간구에 앞서 기억한 고백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과 현재의 상황을 놓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분명히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 관계를 잇는 채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를 향한 계획과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구할지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 깊이 교제하라는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경배와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일이 부족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특새가 이미 제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월 20일 화요일

기도하던 마음을 찬양에 담아



중보기도부와 수요어머니기도회 특순.